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무장무예(無障無礙). 거칠 것도 거리길 것도 없는 삼성의 벽은 높았다. 넥센이 졌다.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주저앉았다.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다. 그 아쉬움의 무리 속에서 '기아에서 넥센으로 갈아탄' 이 지역 팬들도 많았다.

그래도 잘했다. 넥센 선수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 남짓. 평균 연봉 1위인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시리즈 진출함으로써 그들은 작은 기적을 이룬 셈이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3S 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였던 것 같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반정부 움직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펼친 정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앞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3S 정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3S는 스포츠(Sports)·섹스(Sex)·스크린(Screen)의 머리글자(initial)를 의미한다. 스포츠와 섹스 그리고 영상(映像)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愚民化) 정책이 바로 '3S 정책'이다.

전두환 정권이 바로 그랬다.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이 1980년. 이

무렵부터 러브호텔 허기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이로써 불륜 커플들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포르노 테이프'가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1982년엔 야간 통행금지해제된 가운데 성매매 업소가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에 각종 프로스포츠(professional sports)가 도입된 것도 80년대였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이듬해에는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잇따랐다. 이전까지만 해도 로지 운동만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선수는 레슬링이나 권투가 고작이었다.

'3S 정책'의 산물 프로야구

그러고 보니 프로야구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프로야구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제도(franchise system : 지역연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많은 야구팬들은 해태타이거즈(지금의 기아타이거즈)에 열광했다. 그만큼 역을 리고 소외된 한(恨)을 야구를 통해 표출했으리라. 타이거즈 또한 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열 번의 우승으로 보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성적이 영 신통치 않았다. 국보급 투수로 명성을 날렸던 선동

'염갈랑'의 따뜻한 리더십과 작은 기적

열 감독 취임 이후만 봐도 그렇다. 최근 3년간 5위에서 8위 또 8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청량리 588'의 여자들처럼 끝없는 낙담으로 빠져들던 선 감독은 결국 자신사회의 길을 걸었다.

'명선수는 명감독이 되기 어렵다'는 체육계의 속설이 있다. 현역 시절 최고의 선수가 반드시 코치나 감독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선 감독은 이를 스스로 증명하고 씩씩하게 물러났다. 잘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듯이 하다가도 못할 때는 사정없이 못매를 가하는 '갈대 같은 팬심'에 부화뇌동(附和雷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선 감독이 실패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선수 시절엔 별 볼 일 없었지만 감독으로 명성을 날리는 경우를 가끔 본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올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넥센히어로즈 염경엽 감독의 예가 바로 그렇다. 그의 선수 시절 통산 타율은 고작 1할9푼 5리에 불과했다. 역대 500경기 이상 출전한 타자들 가운데 최저이자 유일한 1할대다.

하지만 낭중지추(囊中之難). 그는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었나 보다. '염경엽에게는 있고 선동열에게는 없는 것이 간절함과 노력'이라 했던 누군가의 말이 공감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적이 있는가. 염 감독이 그랬다. 이는 그가 가난했다는 게 아니라(오히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다만 '루저의 눈물' 같은 것을 말한다.

10여 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당시 염 감독의 직함은 현대유니콘스의 운영팀 대리였다. 요즘 드라마 '미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말단 직원. 어린 출입기자들도 대충 말을 놓는, 시쳇말로 별 볼 일 없는 샐러리맨이었던 것이다.

말단 직원에서 명감독으로

2004년 현대가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는 롯데호텔까지 비를 맞고 뛰어가야 했다. 우승 축하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고 대중 준비를 마친 그는 "한숨 돌리고 나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초라했다"고 회상한다. 팀은 우승했지만 자신은 정말 슬펐다는 것이다.

말단 프런트 직원이었던 그는 어떻게 해서 제갈랑에 버금가는 '염갈랑'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절실함이다.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 그는 언젠가 코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절치부심(切齒痛心). 이를 악물었다. 구단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는 야구 공부를 계속했다. 밤늦게까지 남아 경기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선수들과 감독의 성향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오로지 훗날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그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었다.

넥센 선수들의 절실함 역시 감독 못지않았다. 다른 팀에서 주전이 되지 못했던 선수들도 넥센으로 와서는 달라졌다. '여기서도 못하면 끝'이란 절박함을 갖고 뛰었다. 그렇게 해서 서건창(광주일고 출신) 등 많은 영웅들(히어로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염 감독은 경기중 더그아웃(대기석)에서 내내 선 채로 작전을 지시한다. 이유가 있다. '선수들이 맘을 흐리려 뛰는데 감독이라고 앉아 있을 수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만큼 따뜻한 감독이다. 그에게서 '미생'에 나오는 '오 과정'의 모습을 본다. 이 지역 팬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단지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염 감독은 늘 자신의 공(功)을 감추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다. "나는 결과가 안 좋을 때 책임만 지면 된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다. 결과가 좋을 때는 자기 공만 내세우고, 일이 잘 안 되면 남의 탓만 하는 자급의 정치인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탐사로봇, 인류 최초 혜성 착륙 성공

유럽 탐사선 로제타호 '필레' 우주 항해 10년 8개월만에

3개월간 토양 분석...태양계·생명 기원 실마리 제공 기대

유럽의 우주 탐사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 관제센터는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Philae)가 12일 오후(세계 표준시 기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7월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돌체를 혜성 탐벨 1호에 충돌하는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혜성 표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자크 도르맹 ESA 사무총장은 "혜성 착륙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며 기뻐했다.

탐사 로봇 필레는 혜성에서 수집한 상당량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지만 착륙 당시 고정장치인 작살 2개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아직 화성 표면에 물체를 고정하지는 못했다고 ESA가 밝혔다.

ESA는 "필레가 표면에 고정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

다. ESA는 현재 필레와 로제타호 간 무선 연결이 끊어진 상태지만 이는 예견된 것이라면 13일 연결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레는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이날 오전 8시35분 모선인 로제타호를 떠나 약 22.5km를 낙하하고서 7시간 만에 이 혜성 표면 '아질키아'에 안착했다.

무게가 100kg가량 되는 필레는 중력이 거의 없는 67P에 착륙함과 동시에 썰매가 나가지 않도록 드릴 장치와 작살을 이용해 표면에 물체 고정을 시도했다. 아질키아는 67P 혜성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이라 지난 9월 착륙 지점으로 확정됐다.

현재 지구에서 5억1000만km 떨어진 67P 혜성은 마치 고무 오리 장난감처럼 2개의 큰 덩이가 목으로 연결된 모습인 '오리 혜성'으로도 부른다. 태양 주위를 6년 반에 한 바퀴씩 돈다.

필레는 혜성에 착륙하고서 곧바로 주변 사진을 촬



영해 보낼 예정이다. 또 표면에서 30cm가량 아래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최소 3개월가량 탐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혜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로제타호와 필레가 보내오는 자료는 태양계 진화 역사와 나아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보성 갯벌·가거도 도립공원 지정 추진

전남도, 주민설명회 등 마쳐...강진만 갯벌은 주민 반발로 제외

보성 벌교 갯벌과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를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진만 갯벌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 벌교 갯벌(10㎢)과 신안 가거도(9㎢)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1년여에 걸쳐 타당성 용역조사와 현지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다.

전남도는 갈대와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짙은 나뭇가지와 꼬막이 잡히는 보성 벌교 갯벌과 후박나무 등 원시림이 조성돼 있고, 패총과 등대 등이 있는 신안 가거도가 도립공원으로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니 등 철새 도래지인 강진만 갯벌(26㎢)도 당초 포함돼 있었으나 2577명의 주민들이 사유지 지가 하락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이유로 반대해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조사는 하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내년 초에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주 빛가람도시 국립전파연구원 오늘 개청식

국립전파연구원이 14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개청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국립전파연구원 혁신도시 신청사는 부지 3만4381㎡, 건축 면적 1만4495㎡에

지상 4층 규모로 142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지원과 전파 환경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 방송통신 기자재와 관련한 품질 인증 등 국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이다.

연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등 4개 기관이 이전하면 13개 공공기관이 빛가람혁신도시에 동지를 틀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롬'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병원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성취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총자산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1. 14(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④ 도시 대전망·도시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⑤ 3천~1억 소액투자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협력기자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2015학년도
NCS연구·소위스 도제사적교육사범학교

광주공고 신입생 전형 요약

대한민국 기술인재 육성 70년의 역사로 새로운 100년의 힘찬 도약 실현

- 능력중심사회 핵심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시범운영
- 교육부, 노동부지정 연구사범 학교지정 4년간추진 (2013.3 ~ 2017.2) 45% 예산 확보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연구사범학교 6년간 추진(2015. 3 ~ 2021.2) 120% 예산 확보
-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이 유리한 도제식 취업특성 실무형강화 특성학교 육성

1. 모집 학과 및 정원 (남·여 공학 14학과 420명) / 학과별 모집

구분	학과	장	기	기	기	전	전	토	건	계
모집학급	2	3	2	1	2	2	2	2	2	14
	정원	54명	81명	54명	27명	54명	54명	54명	54명	378명
정원내	일반	6명	9명	6명	3명	6명	6명	6명	6명	42명
	특	60명	90명	60명	30명	60명	60명	60명	60명	420명

2. 모집 지역: 전국단위 모집
3. 원서 교부 및 접수: 2014. 11. 17.(월) ~ 11. 21.(금)
4. 지원 지역

가. 일반전형
1) 전국 중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소질·적성을 고려한 취업희망자 전형으로 중학교 전학년 무단결석(지각, 결과, 조퇴 포함) 3일 이내의 품행이 방정한 자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로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062-570-2804, 2805, 인터넷 http://gl.hs.kr/

광주공업고등학교
Gwangju Technical High School